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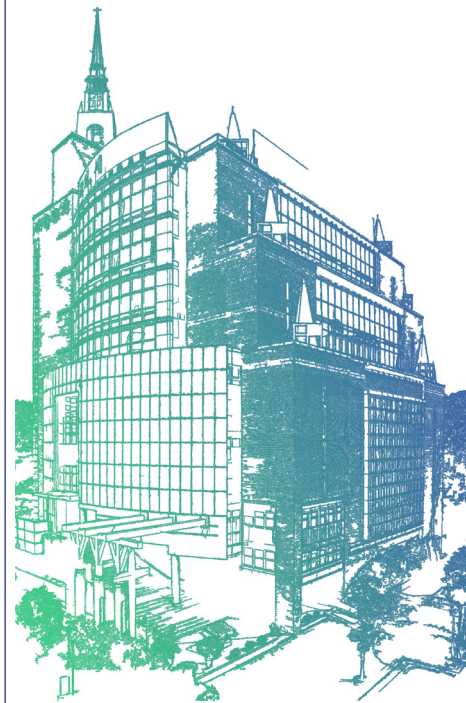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시온에서 안일한 자

(아모스 6:1 ~ 14)

원로목사 **이종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핵심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주의에 빠져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신앙적 안일주의에 빠져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안일한 삶이란 매우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하시며 우리에게 쉬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아모스가 책망하는 안일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방심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1. 누가 안일한 사람인가

(1) 교만한 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1절).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산지대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원수로부터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 유다의 수도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은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천대했습니다. 이들이 의지한 것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완전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 곧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은 형식일 뿐이었으나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 꾸물거리는 자

“너희는 흥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3절).

심판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번영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4:19-20).

이 부자는 영적인 잠에 빠진 안일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3) 방종하는 자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4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치와 연락에 빠져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자신의 부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 때 국가나 교회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이웃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준다면 그것은 결코 희생의 제물이 아닙니다.

2. 안일한 자의 잘못

자기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무관심하면서도 자기는 시온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능한 것으로 착각했으나 사로잡히는 자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굽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8절).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감각해 집니다. 내가 편하면 남도 배가 부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죄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 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성도가 많을수록 훌륭한 교회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썩으로 바꾸며”(12절).

이것은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은 상식이 없어지고 진리가 매장이 되는 때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썩으로 바꾸는 악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봉사하는 일을 날마다 찾아야 하며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유초등부



최근영 전도사
(유·초등부지도)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7월 28-29일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 아가페 타운으로 떠났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 7월의 대장정을 시작하려하니 떨리지 않겠어요?! 모두 긴장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외부로 나가보지 않았던 유년부 아이들과 의젓한 초등부 아이들은 벌써 기대가 되나 봅니다. "전도사님, 아직 멀었어요?", "전도사님, 몇분 있어야 도착해요?" 등등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잠깐 대화하는 사이 아가페 타운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숙소에 짐을 풀고 성경책, 필기도구를 챙겨 믿음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믿음의 집의 쾌적한 장소에

서 아이들은 이미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일정은 정말 쉴 틈이 거의 없는 빠듯한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공과를 28-29일 이틀 동안 거의 50분씩 4번 진행하고 코너학습으로 서울교회 퀴즈센터와 도미노로 서울교회를 만들어 보는 시간, 그 외에도 저녁 기도회, 조별 말씀읽기 시간, 물놀이 등등 거의 쉴 틈이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하나 없이 잘 참여하며 성경말씀을 배워 가는 아이들이 참 기특했습니다. 성경학교로 이동하는 첫날 비가 와서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적당히 해를 막아주는 구름 덕에 시원한 날씨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한 모기 걱정 없이 성경학교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

을 배우며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아이들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선생님들의 섬김입니다. 어느 한 분도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총괄을 해주신 장윤기 부장님과 따름 뽀뽀 흘리시며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신 박미혜 부감님, 그리고 아이들을 맡아 돌보셨던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진행을 맡아주신 제1, 2 청년 선생님들 역시 모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즐겁게 섬겨주셨습니다.

1박2일, 짧지만 알찬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유초등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7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김도윤 (초등부 3)

지난 7월 28일(금)~7월 29일(토) 까지 이틀 동안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아가페 타운으로 여름성경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교회를 벗어나 같이 예배도 드리고 공과 공부와 놀이도 같이하고 무엇보다도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이 여름성경학교에 가기 전부터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를 떠나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와서 놀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 되었는데, 무사히 아가

페 타운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나니 여름성경학교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 시간에 최근영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레크레이션'과 '서울교회를 세워라' 라는 제목의 도미노 게임이었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선생님이 부르시는 숫자만큼 친구들과 뭉쳐야 하는 게임이었는데, 친구의 수가 부족한 경우 탈락이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도미노게임에서 우리 조는 '서울교회'의 '서울' 2글자를 도미노로 세워야 했습니다. 도미노를 세우며 중간에 여러

차례 실수로 도미노를 쓰러뜨려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면서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친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놀이를 통해 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투지 않고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여름성경학교였고, 벌써부터 겨울성경학교가 기다려집니다.

2017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닦아가기를



김재용(고등부 부회장)

7월 21일에서 22일, 1박 2일간 아가페타운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교회 상황 속에서 무사히 수련회를 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진행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깊은 기도로 준비한 결과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아가페타운에서 여는 예배로 1박 2일의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는 예배 중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거룩성 회복을 막고 서로 소통의 벽이 되는 전자기기를 모아 보관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말씀, 곧 밥 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밥 절은 여는 예배의 말씀 구절이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 : 45)"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모여서 물썰매장에 가서 즐겁게 활동하는 동안 중고등부는 서로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식사와 간식을 준비

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녁 집회는 찬양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찬양 팀의 인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의 첫날이 아쉽게 흘러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예배와 Q.T를 했습니다. 조금은 피곤했지만 특별히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갔습니다. 임원단이 준비한 활동과 미니 올림픽을 진행한 후 소감을 쓰는 시간이 지난 뒤 마지막으로 마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세상에 나가 생활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지 않게 상기시키는 예배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친구들과 선후배들과도 친해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동 정

■ 연주회 : 9교구 이주희 성도(3부 피아노 반주자) 제5회 오벌린 음대 동문 음악회 8월 7일 (월)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 금주 식사 제공 : 김태수 집사, 김은희3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2017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중에 진행돼

청년2부 : 8월 14일(월) ~ 15일(화), 아가페타운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청년2부	8월14일(월)~15일(화)	아가페 타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서준권 목사

2017 성경 암송대회

베드로전서 1~5장

예선 : 10월 1일(주일) 교회학교 별 / 본선 :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은 NIV(1984년 개정판)성경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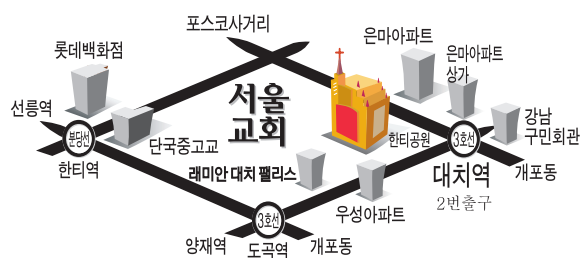
한편 5월 31일부터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일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I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기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을 세워 가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